

안녕하십니까? 저는 올해 2019년도 2월에 졸업을 하고 ㈜ 카팩발레오에서 선행기술팀 재료분석 연구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신소재공학부 13학번 박성환입니다. 우선 이렇게 무사히 대학생활을 끝나치고 졸업 전에 취업을 하는데 도움을 주신 박노근 교수님을 비롯하여 신소재공학부 교수님들 및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취업 후기를 글로써 남길 기회가 되어 한편으로 뿌듯하기도 합니다. 제가 걸어온 길이 이랬다는 것을 참고로 하셔서 앞으로 재료공학도의 길을 걸을 후배님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저는 공부를 그렇게 잘하지도, 어학성적이 높은 편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제 자신의 장점을 꼽자면, 몸을 바쁘게 움직여 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여러 활동들에 대한 참여를 해왔다는 것입니다. 제 글이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 학점이 많이 우수한 사람들보다는 저와 비슷한 상황에 놓인 후배들, 아직 관심 분야를 정하지 못한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 영대 소식 활용하기 - 영남대 공식 생생정보통

군 복무를 마치고 2학년으로 복학을 했을 때, 저는 아직도 관심 분야를 정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영남대학교 홈페이지에서 영대 소식을 매일 1회 이상 확인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관심 있는 프로그램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뒤적이는 수준으로 시작했지만 소식을 통해서 프로그램을 알게 되고, 그 프로그램에 참여해보면서 다양한 경험들을 축적해왔습니다. 인간 관계 및 리더십 함양을 위한 영남대학교 카네기리더십프로그램, 발표불안감을 해소하고자 참여한 발표불안 극복 프로그램, 해외자원봉사활동 등 이수를 하면서 제가 부족했던 부분들 (인간관계, 학습습관, 발표경험, 글쓰기 방법 등)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있었습니다.

2. 학생지원센터 및 교육개발센터 활용하기 - 등록금 낸 만큼 이용하자!

영남대학교 내에서 시스템 구축이 가장 잘 되어있다고 생각되는 곳이 교육개발센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학점이 떨어지고 공부에 흥미를 잃고 있을 때 찾아간 곳이었습니다. 영대 소식을 검색하다가 알게 된 교육개발센터에 1+1=3, YU CAN Challenge 등의 학습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거기서 알게 된 선생님들로부터 학습법을 배웠고 학점을 높이거나 유지하는데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시간관리하는 방법에서부터 나의 공부습관, 공부계획 작성법 등 정말 유익한 강의, 교육법들을 배우고 실제로 적용해보면서 학업 슬럼프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특히 YU CAN Challenge 프로그램은 주간 공부계획, 시간관리, 효율적인 자기관리법을 배우고 직접 교육전문가 선생님들이 멘토링을 해주시기 때문에 학점 관리를 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학점문제, 공부습관이 없거나 학점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학생들은 과감하게 교육개발센터에서 해결책을 찾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3. 정말 전공을 살리고 싶다면, 교수님 방문부터 두드려라!

제가 대학생활을 하면서 제 스스로를 칭찬하고 싶었던 점은 교수님의 방문을 두드렸던 것입니다. 단순히 노크하라는 뜻이 아니라, 제가 가진 고민이나 제가 관심 있는 분야를 어떻게든 찾아보려고 관심있는 기술을 찾은 다음 관련 교수님을 찾아갔습니다. 2학년 때는 나노기술에 관심이 있어서 나노소재연구를 하시는 교수님의 방을 찾아가 학부연구생을 하고 싶다고 말씀드렸고, 6개월 동안 그곳에서 학부연구생 생활을 했습니다. 이 연구실 생활 경험을 바탕으로 교수님들, 대학원생 형님들을 만나면서 연구분야에 대한 시야가 많이 넓어졌습니다. 제가 금속합금을 개발하는 연구실에서 학부연구생으로 활동했을 때의 교수님과 캡스톤디자인 수업의 지

도교수님들 모두 저에게 대학생으로서는 찾기 힘든 좋은 정보들을 많이 제공해 주셨습니다. 저는 워낙 경험파라 남들의 카더라(?)통신보다는 제가 직접 해보고 나서 그 소감은 직접 확인하는 성향이라 교수님이 알려주시는 공모전, 혹은 대회, 프로그램 같은 것들은 일단 참여해보았습니다. 그 공모전이 저에게 도움이 되든 안되든은 나중 문제였습니다. 결국, 전국 공과대학생 30명, 해외 공과대학생 70명이 모여 만남의 장을 이루는 Young Generation Forum에서부터 Steel challenge 13, 교내 융합 캡스톤 디자인 프로젝트와 같은 다양한 경험들을 통해 저는 연구 분야에 대한 매력을 느끼고 연구 직종으로 취업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4. 관련 분야에 대한 경험을 해보는 것과 안 해본 것은 하늘과 땅 차이다!

특정 직무 분야를 지원하려는 학생이라면 자신이 왜 그 직무 분야에 지원하고 싶은지에 대한 명확한 자신만의 이유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직무 분야에 대한 경험,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한 대략적인 지식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직무 분야에 대한 경험, 준비 없이 말로만 어떤 직무에 가고 싶다고 하는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생산관리는 실제로 어떤 일을 하는지, 품질관리는 어떤 프로세스로 일을 하는지, 그 직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능력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내 적성과 성격이 품질관리에 적합한지 등에 대한 철저한 고찰 없이 단순히 취업만을 위한 자소서는 티가 확 납니다. 현장실습, 인턴 혹은 관련된 분야에 대한 경험을 1회 이상 해봐야 자신에게 맞는지, 자신이 진짜 원하는 직무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저 역시 처음부터 연구분야로 직무를 가야겠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연구원이 대략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 학부연구생 경험을 통해 논문과 자료들을 찾아보는 일, 이론을 실제로 적용해보는 일, 실험 및 분석 활동을 해보면서 저의 적성과 비교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금속 전공계열 과목을 들으면서 금속이 많이 사용되는 산업 중 자동차 산업에 대해 분야를 정하고 연관되는 박람회를 자주 등록하여 답사를 갔습니다. 대구미래자동차박람회에서부터 기계부품산업대전,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서울 모터쇼도 직접 가 보면서 기업들의 제품개발 동향과 기술들을 직접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비록 학생의 지식과 전공지식으로는 한계점이 분명히 있기에 전부를 이해하기는 어려웠으나, 이러한 관심을 가지고 직접 발로 뛰어본 경험은 현재 제가 하는 업무에 대한 이해도 및 회사에서 제작하고 있는 제품에 대한 이해를 더 빠르게 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5. 전공을 살리고 싶다면 전공을 살리는 직무를 선택해라!

정말 많이도 고민했고, 취업할 때 항상 익숙하게 나오는 질문이 전공을 살리고 싶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누구나 전공을 살리고 싶어할 겁니다. 4년간 배운 내용이 실제 업무에 하나도 쓰이지 않는다면 허탈한 느낌이 들 수 밖에 없고, 완전 뽕 초보자나 다름 없을 정도로 다시 처음부터 배워야 되는 상황이 될 겁니다. 흔히들 내가 이러려고 대학 4년간 눈물나게 공부했는가 소리도 나올 거구요... 여러분들 중에 취업멘토링을 한번이라도 참여해보셨다면 아실 겁니다. 생산관리, 품질관리 직종으로 선배들이 많이들 진학을 했기 때문에 생산관리와 품질관리 직무에 대한 공부를 따로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라고요.. 제가 재료공학관련 분야로 저희 지식이 확실히 쓰이는 곳은 연구개발 쪽이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 신소재공학부는 재료 구조 및 성분 분석, 재료의 미세 조직학적 관점에서의 해석, 가공에 따른 재료의 물성변화 분석이 주 특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재료분석이나 재료 설계, 재료 가공 공정과 관련된 직무에서 빛을 발합니다. (제가 하고 있는 일도 재료 분석이니 전공을 살렸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학생활에서 배운 내용은 용어에 익숙해지고 심화 학습을 하기 위한 준비단계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6. 토익, 토스, 오픽 점수를 만족시켰으면, 어학성적을 위한 공부가 아닌 회화실력을 기르자!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는 글로벌 기업이라 영어로 된 자료들을 많이 봐야 됩니다. 화상 통화로 회의를 진행하시는 상사분들도 꽤 많으시구요. 영어가 중요하다는 것은 제가 말하지 않아도 피부로 와 닿을 정도로 느껴지실 거라 믿습니다. 입사하고 나서 제 상사분들이 저한테 항상 영어에 대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영어로 자기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상대방에게 잘 전달할 수 있으면 된다.”

진짜 영어 실력은 자신의 생각을 바로 상대방에게 전달을 시킬 수 있는지의 여부로 결정됩니다. 제가 해외자원봉사로 캄보디아에 갔을 때 현지인 가이드 한명 뿐이라 모든 지시사항들에 대해 통역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 당시 해외자원봉사를 갔었던 사람들 중 토익 성적이나 어학성적이 저보다 월등하게 높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실질적인 영어 통역은 어학성적이 낮은 제가 했었습니다. 제가 4학년 때 캡스톤디자인을 시작한 연구실에서도 대학원생들 모두가 인도네시아 사람들이었고, 영어로 저희가 해야 될 과제들에 대해 설명을 들었을 때, 제가 팀원들에게 번역해서 알려주기도 했습니다. 취업할 때 적정수준의 토익성적을 맞추는 건 필요합니다. 또한 영어단어나 표현들은 토익, 토스를 공부하면서 쌓이는 것이 맞지만, 정말 영어를 잘 하고 싶다면, 외국인과 직접 대화를 해봐야 합니다. 같은 영어라도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쓰는 영어, 영국사람이 쓰는 영어, 미국사람이 쓰는 영어, 심지어 유럽사람들이 쓰는 영어는 완전히 다르게 들립니다. 그런 사람들의 발음을 유심히 들으면서 순간적인 언어 조합 능력(?)을 기른 사람이 훨씬 더 소통을 잘 합니다. 처음에는 많이 어색하고 어눌하고 부끄럽고 말수가 적어지는 모습을 보실 수 있겠지만, 조금씩 수정하면서 계속 외국인과 대화를 해 나간다면 영어 회화에 대한 자신감이 많이 높아질 겁니다.

다행히도 영남대에서는 국제교류팀이라는 부서가 있어 어학관련 프로그램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많습니다. LPP 프로그램이나 버디프로그램, 해외자원봉사 등 여러 프로그램을 해볼 수 있으니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많이 참여하셔서 어학 실력에 자신감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은 장황하게 했지만 제 결론은 이렇습니다.

1. 대학생 때 다양한 대내, 대외활동을 해라! - 영대소식, 학생지원센터 및 인터넷검색을 통해 그 정보를 찾아서 직접 해봐야 된다. 남들의 카더라 통신을 믿지 말고 두 눈으로 확인하기
2. 자신의 관심분야를 찾고 그 관련 분야의 교수님을 만나라!
3. 가고 싶은 직무 관련 분야에 대한 경험을 쌓아라! - 인턴, 현장실습, 박람회 등
4. 영어 회화 실력은 직접 외국인과 대화를 해보면서 쌓인다!
- 영대 내 국제교류팀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그 기회를 잡아라!

제가 언급한 모든 내용들은 제가 누군가로부터 들은 내용들이 아니라 제가 직접 참여하고, 경험해본 것들입니다. 이렇게 후기를 쓰면서 매우 아쉬운 점이 있다면 직접 해보지 않고는 결코 모른다는 것입니다.

개강하고 나서 방학이 되기 전까지 정말 열심히 살고 계실 여러분들의 노력이 졸업 후에도 빛이 났으면 합니다.